

# 아이디어창출및 발명의발상기법

## 역사고 방법

발명을 하는 것은 탐험과 마찬가지로 미지의 사실에 도전하는 일로써 그 가치를 찾아볼 수 있다. 발명가는 다른 길을 개척하면서 나아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테크닉(기교)을 필요로 한다. 이를테면 「잠재의식법」 「꿈의 사고법」 「패럴렐(평형)사고법」 등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역사고 방법」은 발명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지주가 될 것이다.

역사고라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 「밀어보아도 안될 때는 끌어당겨본다」라는 것과 같이 사물에 대하여 반대로 생각하는 일인 것이다. 이를테면 물통도 거꾸로 하면 발판대나 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 요령을 평소의 생활에 받아들이면 즐겁고도 명랑한 인생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며, 단지 사물을 역사고로 보는 습관을 붙이면 몸에 저절로 따라오게 마련이다.

돈을 벌어보고 싶다면 이것저것 계략을 쓰는 일은 그만두고서, 상대가 벌 수 있는 일, 기뻐할 일 등을 궁리하여 실행하면 된다. 그리하면 상대에게 돈벌이를 해 주게 되고, 마침내는 쌍방이 다 이익을 보게 된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에는 상대를 나쁘다고 책망하지 말고, 잘 반성해 본다. 그리하면 자기에게도 실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필요없는 고집이라든가 자존심을 버리고서 서슴지 말고 사과하면 상대도 잘못을 깨달아 사과하게 된다. 이리하여 단번에 훌기분한

기분이 되어 여러 가지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상대가 솔직히 나오기를 바랄 때는 이쪽에서부터 먼저 솔직한 태도를 취하면 된다. 이와 같이 무슨 일에 있어서든지 스스로 잘 되려고 하려면 이 역사고 방법을 응용하면 되는 것이다.

발명이나 아이디어를 내는 능력은 과연 특수한 선천적인 소질이며, 교육에 의하여 길러질 것인가?...라는 의문이 생길 것이다.

모 회사의 경영자는 이 역사고 방법을 신입사원에게 시도해 본 결과로부터, 이 일반 통념은 창조성에 대한 오해이며, 기업내에서 실시하는 창조성 개발에도 역사고 방법을 철저히 교육시킨 결과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또 「잠재의식법」이란 아이디어를 탐색하거나 신제품을 개발할 때의 요령으로서, 어떤 어려운 과제라도 당초에 우선 가능하다는 것을 무조건 믿는 일로부터 시작하는 일이다. 그리고 가능이란 사실을 잠재의식 속에 확실히 심어 놓고, 그 중에서 곤란한 부분을 하나씩 끄집어 내어 검토해 나가는 방법이다. 가능이란 전제로부터 끄집어 내어 어려운 곳은 끈질기게 분석하면서 처리해 나가는 동안에 대개는 가능하게 된다. 묘하게도 자신과 투지가 용솨음치게 된다.

발명의 작업에는 해결되지 않는 요소도 있다. 그러나 각종의 사고 방법을 개발하여 실행해 나간 덕분에 기업이 발전하게 될 것임은 말할 나위 없는 사실이다.

“  
**이것과 저것을 붙여서 신제품을 낳는 일…**  
**누구나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

### 역발상의 중요함

사물에 대하여 정면으로 달려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의 생각 방법을 하는 일로써 뜻하지 않은 길이 열리게 되는 일도 있다.

우리들이 어릴 때에는 「1,2,3」으로써 행동을 개시했다. 그러나 지금의 어린이들은 그렇지 않다. 「3,2,1,0」으로써 행동한다. 전혀 반대인 것이다. 관광버스에서도 지난날엔 1호차로부터 차례로 늘어 서서 달렸지만, 지금은 호수 최종 버스로부터 차례로 달리게 된다. 5호차, 4호차, 3호차...라는 차례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다른 차들이 스쳐갈 때, 「모두 다 5대 스쳐갔다」라고 미리 알 수 있어서, 안전 관리도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종전의 상식으로 목욕탕 물을 데우는데 열은 밖으로부터 공급되어 왔으나 속에서 데우는 방법을 생각해 낸 것이 사진의 「연탄으로 목욕탕물 데우는 기구」이다.

이 목욕탕물 데우는 기구는 고품 연료라면 무엇이든지 사용된다. 이 기구를 목욕탕 물속에 집어 넣는 것으로 해결된다. 불과 얼마 안되는 연료비로 하루동안 더운물을 얻을 수 있어서 에너지 절약형 기기로 인정받은 것이다.

목욕탕물뿐만이 아니라 더운물을 사용하는 취사장(부엌), 세면장 등에도 사용할 수 있다.

공급 공기량의 조절도 가능하기 때문에 열량의 조절도 쉽고, 배기가스 역시 옥외로 배출시키는 장치로 되어있어서 안전하다.

바깥에서 데우는 방식이 당연한 것으로 되

어있는 종전의 목욕탕물 데우는 기구를 탕 속에 집어 넣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한 발상에서 태어난 이 난방기는 역발상의 한 가지 예인 것이다.

### 이것저것을 결합시켜본다.

오래전에 일본에서 「세계의 유머 발명전」을 개최한 일이 있었다. 약 100년 전에 진지하게 고안한 년센스(엔터티)작품이 많이 출품되어 웃음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진귀품, 진귀한 발명품 등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몇 점은 상품화로 이어질 것이 있었다고 한다.

전시품의 대개는 기존의 것을 결합시킨 소위 복합 상품의 아이디어라고 하여, 일본 특허청에서는 「단지 굵어 모은 것은 권리를 얻지 못한다」라고 하였다. 또 겸용 발명으로 성공한 예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그러한 발명품은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모든 것이 미니화(소형화)되고, 그 위에 모두의 기호가 다양화했기 때문에 라디오와 카세트테이프, 시계와 게임 워치, 전기탁상계산기와수판등 모두 다 히트하여 겸용 발명의 대유행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손목시계 하나를 예로 들어보아도 겸용 발명 상품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또한 지금의 젊은 사람들에게 많은 환영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100년 전에 생각한 2가지의 것을 합친 아이디어가 최근 부활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과 저것을 붙여서 신제품을 낳는 일...누구나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